에너지 '큰손' 16개사 오늘 광주에 모인다

17일까지 'SWEET 2017'
30개국 180개사 전시 참가
에너지밸리 조성 탄력 기대

국내 최대의 신재생에너지 전시회인 'SWEET 2017(Solar, Wind & Earth Energy Trade Fair 2017)'이 15일~17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동 주최하고 김대중컨벤션센터, KOTRA, 한국풍력산업협회, 한국에너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가 공동 주관하는 'SWEET 2017'은 태양광, 풍력, 바이오, 스마트그리드, 에너지저장시스템(ESS) 등 우수한 에너지기술과 최신 정보를 한자리에서 선보인다.

올해 12회째를 맞는 'SWEET 2017'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에너지산업 선진국을 포함한 30개국 180개사에서 500부스 규모로 열리며 해외 바이어 유치를 위해 국내 유사 전시회 중 유일하게 KOTRA와 공동 주관으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30개국에서 72명의 글로벌 바이어들이 대거 방문할 예정이며, 광주지역 및 국내 참가업체들과 수출상담회가 마련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비즈니스 성과를 예상하고 있다.

또한, 빛가람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전력과 한전KPS와 한전KDN이 참가하고, 남도금형과 MRT, 이삭엔지니어링 등 지역을 대표하는 중견기업이 대거 참가해 광주와 전남, 한국전력이 공동추진하는 '에너지밸리' 조성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재생에너지산업에 적극 투자하고 있는 '한국남부발전'을 포함한 6개의 발전사 참가도 눈에 띈다.

50개사 100개 부스의 규모로 협력업체와 국내 신재생에너지 강소기업들로 단체관을 꾸릴 예정이며, 각 발전사 구매부서와 함께 하는 구매상담회도 열어 중소기업의 국내 판로 개척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상담회에 참가하는 글로벌 바이어 가운데 연간 수출입 규모 1억불 이상의 '큰손'은 16개사에 달하며, 중동지역 바이어들도 대거 참여한다.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사업에 적극 투자하고 있는 중동지역은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등에서 국책사업 책임자와 대기업바이어들이 방한해 국내 신재생에너지 기술과 제품 수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전시회에는 에너지산업과 연관된 다채로운 행사도 준비했다. 한국태양광발전학회가 주최하는 '글로벌태양광컨퍼런스'는 국내외 태양광석학 800여 명 이상 대거 참여하는 국제컨퍼런스로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열린다.

또 중소기업청이 주최하고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 주관하는 '대중소기업구매상담회'는 호남권에서 최초로 에너지산업 특화상담회로 진행, 참가 기업의 비즈니스 만족도를 한층 끌어올릴 전망이다. 16일에 열리는 이번 상담회에는 삼성, LG, SK 등 쟁쟁한 60개사의 대기업 구매담당자가 바이어로 참여하며, 호남권 61개 중소기업을 포함한 170여 개의 중소기업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느리지만 행복한 동행 (재)광주복지재단(대표 장현)은 치근 재단 회의실에서 '장애인활동가 달팽이지기 발대식'을 개최했다. '달팽이지기'는 장애인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보다 느리지만 천천히 가는 모습을 달팽이에 상징화하고, 지기지우 (知己之友)의 지기를 붙여서 모든 장애인들의 친구라는 뜻이다. 〈복지재단 제공〉

광주시 민원서비스 눈에 띄네…비결은 지역 밀착 행정

종합평가 전국 1위 도약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하위권이었던 광주시가 1위로 도약하면서 그 비결에 타 지자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시가 최근 2016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전국 시·도 가운데 1위의 성과를 거뒀다.

광주가 민원행정의 최고 도시가 된 것은 지역 현안과 분쟁에 적극 개입해 신속히 해결함은 물론 고질적인 갈등, 주민불편사항, 묵은 민원 등에 해결책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광주시 민원행정의 키워드는 '정성'이다. 시는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민원행정의 최우선 가치를 시민소통으로 삼아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우문현답과 '듣고 보는 시장실' 운영을 통해 100군데가 넘는 민생 현장을 누볐다.

시 홈페이지 등 시민이 인터넷을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 107개를 통합해 광주형 민원통합시스템 '바로응답'을 구축하여 민원처리 시간을 7시간이나 단축했다.

특히, 공동주택 증가로 주민 간 갈등을 빚고 있는 주택민원에 대한 해법으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개소했고, 62명의 마을세무사가 무료로 세무 상담서비스를 운영하는 마을세무사제도 등을 추진해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였다.

또한 2016년 광주시 민원행정 부문에서는 ▲삼각동 고압송전선로 '지중화 갈등' 해결 ▲과도한 재정지원 문제로 사업자와 분쟁 중이던 제2순환도로 1구간에 대해 최소운영수입보장방식(MRG)을 폐지키로 합의 ▲롯데쇼핑(주) 광주월드컵점의 불법무단전대 문제 해결 ▲17차례 집중대화 끝에 쌍촌동 하수관거 매설공사를 전격 재개하는 등 묵은 민원, 고질 민원을 속 시원하게 해결했다. 이렇듯 광주시가 매일 처리하는 민원처리 건수는 1000여건이 넘는다.

광주시 허기석 자치행정과장은 "올해도 광주시는 시민의 작은 소리도 귀 기울이는 '경청·소통'을 민원행정의 기본방향으로 해 시민에게 친절과 감동을 주는 시민행복 민원서비스를 계속 실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

광주시, 남미 진출 '물꼬'
파라과이 센트럴주 교류 협약

광주시와 파라과이 센트럴주(州), 비예따시가 14일 경제, 에너지, 친환경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자동차·에너지·문화콘텐츠 등을 통해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고, 나아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광주시에 관심을 가진 파라과이州지사가 지난해 12월 광주시와 경제분야 교류를 희망, 상호협의를 거쳐 이뤄졌다.

파라과이는 아직까지 중국과 수교하지 않은 중남미 국가 중 하나로, 중국기업의 진출이 활발하지 않아 앞으로 지역 기업의 중남미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최근 KT광주타워 1층 로비에서 열린 직장맘지원센터 '찾아가는 고충해결단'의 상담 장면. 〈광주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제공〉

직장맘들 바쁘죠? 고충해결단이 갑니다

광주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직장맘 지원센터는 최근 바쁜 직장맘들이 자주 찾는 광주 롯데마트 월드컵점에서 고충상담을 실시했다.

바쁜 직장맘들을 위해 운영하는 '찾아가는 고충해결단'은 지난달부터 노무·보육·심리 전문가들이 직장맘의 왕래가 잦은 교육현장, 기업 등에서 상담하고 무료로 정보를 제공해 직장맘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이달부터는 직장맘들의 고충을 더 가까이서 듣기 위해 매월 둘째주 토요일 직장맘들이 주말에 이용하는 지역 내 대형마트에서 상담부스를 운영한다. 또한, 수시로 상담 신청을 받아 마을공동체, 교육현장, 기업, 행사장 등 직장맘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간다.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직장맘지원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찾아가는 고충해결단을 통해 직장맘들의 고충을 경청하고 해결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

하남3지구 주민 "주차장·체육시설 필요"

광주시 138명 설문조사

광주 하남3지구 주민들이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복합커뮤니티시설과 주차장, 체육시설이 들어서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9일 하남동 주민센터에서 하남3지구 토지소유자 13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우선 설치해야 할 주민 지원 공공시설로 ▲주차장(19.9%) ▲복합커뮤니티시설(19.4%) ▲실내 체육시설(19.2%) 순으로 나타났다.

또 ▲완충녹지 명품화(16.8%) ▲마을회관(13.1%) ▲공원관리사무소 등 기타(12.2%) 등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하남3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방식으로 체비지를 매각해 사업비를 충당하고 있다.

광주시는 이번 설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우선 순위로 최종 사업을 결정할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하남3지구 체비지 매각 후 잔여사업비는 전액 하남3 시설 확충과 공공시설 조성 사업비로 사용할 예정"이라며 "1차 체비지 33필지에서 99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만큼 2차 매각은 최소화해 주민 편익 공공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중기 시설·운전자금 13억원까지 지원

연 2.02% 변동금리

광주시는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2000억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 데 이어 구조고도화자금 30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업체별 지원 한도는 시설자금 10억원, 운전자금 3억원 등 총 13억원 이내이며, 지식산업센터 공장건립사업의 경우 20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상환 조건은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운전자금은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이며 연 2.02%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14일부터 하남공단에 위치한 (재)광주시경제고용진흥원에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최근 2개년 결산재무제표 등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중소기업 현장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듣고 청년창업특례보증 연중 지원 등 경제살리기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채희종기자 chae@

상가 건물 매매 010-7384-7800 010-6670-9800 경매 / 투자 전문

전남 영광군 전원주택 매매

전원주택 강력추천
■ 광주에서 40분

▣ 토지 151평
건물 42평 (준공2년)

가장조용하고 아늑한 동네
내부깔끔 / 주차 완비

◈ 시세 1억5천만
매가 1억1천만(융2천)

동구 수기동 상가매매

20층 중 6층
◈ 평수 45평

천변로 전망 최고
리모델링 완비
주 차 완비

▣ 보 1천만-월 70만

▶ 시세 1억6천
매가 1억3천(융5천)

상무지구 상가매매

10층 중 6층
(23평) 코너자리

리모델링 완비/투룸 가능

보 500만 월 44만

◈ 매가 8천 300만

▣ 북구 중흥동 모아 A.P.T
15층 중 10층 (50평)
방 4개 욕실 2개 (내부 깔끔)
매가 2억3천

▣ 상무지구 상가매매
6층 (19평) 롯데마트앞, 상무나이트옆
상무지구 중심가 / 수림오피스텔
매가 7천200만

▣ 광양 상아 아파트 매매
15평 - 12층 (전망 최고)
광양시청 / 광양산업단지 5분
매가 3천만

법률 경매 (주)대신경매 경매물건추천

▣ 동구 수기동 (상가건물)
토 50평, 건 60평
금남로 4가, 5가역 2분
▶감정가 3억 → 최저가 2억1천

▣ 광산구 쌍암동 (무인텔)
토 415평, 건 577평
첨단지구 쌍암공원 1분,
총 룸 28개 (월수익 3,000만 예상)
보 2억 월 1천만 (임대가능)
▶감정가 45억 → 최저가 31억

▣ 남구 주월동 (상가주택)
토 50평 건 27평
장산초등학교 인근, 원룸밀집지역
▶감정가 1억4천 → 최저가 9천8백

▣ 서구 쌍촌동 (숙박시설)
토 86평, 건 340평
1층(상가) 2층~5층 룸 총 33개
월수익 1,000만예상 / 운천역 1분
▶감정가 11억 → 최저가 7억8천

▣ 수완지구 (1층 식당상가)
토 74평, 건 47평
수완지구 국민은행 뒤
주차 완비 / 식당 최고 자리
▶감정가 8억5천 → 최저가 5억9천